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글로벌 갈등도 연준의 고금리 상황 부추킨다
- WSJ: 종업원이 그만두지 않아 상사는 골치거리

[미국 금융]

- CNN Business: 미국 은행들, 입금 지연으로 타격 받았다

[부동산]

- WSJ: 빈 사무실의 아파트 전환, 점점 어려워 진다
- Bloomberg: 느리게 진행되는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미국생활]

- NYT: 미국 직장인들 출퇴근 환경이 바뀐다
- Bloomberg: 미국, 유아 사망률 20년 이래 첫 증가... 산모 건강관리 필요

[자동차 파업]

- CNN Business: UAW, 이미 다음 자동차 파업을 계획한다
- CNBC: GM, UAW와의 잠정 합의에 따라 130억 불 투자 계획

[글로벌 경제]

- WSJ: 세계화가 쇠퇴하고 있는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연말 연휴 소비 전망이 좋지 않다
- Bloomberg: 미 상위 비즈니스 스쿨들, 지원자 수 감소로 고군분투
- WSJ: 인력 부족과 재택 근무로 장애인 근로자 증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Add Global Conflict to the Forces Keeping Interest Rates High 글로벌 갈등도 연준의 고금리 상황 부추킨다

- 요지: 주요 품목 공급망 혼란시키는 국제 분쟁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가세한다
- 전쟁과 갈등시대에는 투자자들이 국채와 다른 안전자산에 투자해 금리를 낮추었다.
- 그러나 오늘날의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는 주요 원자재 공급을 뒤흔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힘든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채권 수익률이 최근에 상승하고 추가로 더 오를지 모르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례로 세계은행은 이스라엘 하바스 전쟁으로 원유가가 배럴당 1백50불 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유가 상승은 광범위하게 인플레이에 불을 붙여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 전쟁도 오일과 가스 시장에 작년엔 혼란을 주었고, 식량 공급도 위협하고 있다.

- 미중 갈등도 관세와 수출 통제에 영향을 주어 주요 원자재와 품목 흐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WSJ 기사

WSJ: The New Headache for Bosses: Employees Aren't Quitting 종업원이 그만두지 않아 상사는 골치거리

- 요지: 작년엔 기업들이 직원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엔 기업들은 “사직하는 종업원이 줄고 있다”고 말한다.
- 최근들어서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직원들이 너무 적은 상황이다.
-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이직률이 크게 줄어 특정 팀의 예상이 초과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상사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연기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 인력을 감축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또다른 상사들은 업무 공석이 훨씬 줄어들어 직원들은 새로운 역할도 이동시키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제약회사Ferring Pharmaceuticals는 올해 사직하는 직원들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경영진은 노동시장이 수년간 타이트한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CNNBusiness: US banks hit by deposit delays 미국 은행들, 입금 지연으로 타격 받았다

- 연준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결제 처리 네트워크 오류 때문에 많은 미국 은행들이 입금 지연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 은행들이 서로간에 전자 결제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을 운영하는 이른바 ‘결제 하우스’에서 은행 거래 처리 일괄 오류가 발생했다. 은행들은 자동 이체 급여와 모기지 및 고지서 관련 고객 지불 처리 등 모든 면에서 자동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관련 당국은 자동결제 시스템의 1% 미만이 영향을 받았다면서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의 은행들과 관련 대응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부동산]

WSJ: Turning Empty Offices Into Apartments Is Getting Even Harder 빈 사무실의 아파트 전환, 점점 어려워 진다

- 요지: 작년에 오피스 공간에서 아파트로 전환한 곳은 3천5백57개 아파트에 그쳤다. 가뜰이나 힘든 과정에서 더 어려워 지고 있다.
- 비어있는 오피스 건물을 아파트로 바꾸려는 도시들은 이같은 개발에 난관을 겪고 있다. 자금 조달문제나 임대 시장 정체 등의 이유 때문이다.
- 임대 리스트 사이트인 RentCafe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 개발업체들이 사무실 개조를 통해 아파트로 전환한 가구는 3천5백75개 밖에 되지 않았다.
- 이는 작년에 신축으로 건설된 아파트의 1%도 채 되지 않는 규모다.

WSJ 기사

Bloomberg: The Slow-Motion Crisis in Commercial Real Estate 느리게 진행되는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 연준의 금리 인상, 재택 근무와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오피스 공간과 소매 공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상업용 건물 가격이 급락하고 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대출 능력 저하, 빈 건물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로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
- 대부분의 부동산의 개인 소유 인데다 수요 변동에 따라 가치가 조정되는데 수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위기는 현재 수개월에 걸쳐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 가격 하락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회사의 대출 능력을 저해하게 되는데 대출 가치대비 부채 비용이 증가한다.
- 코로나 이후 근무 패턴 변화로 특히 오피스 빌딩이 큰 타격을 입었다.
- 미국의 경우 2023년 3분기말 현재 주요 도시의 사무실 공간의 5분의 1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다.
- 빈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이지만 오래된 건물은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비용 경제성이 무리한 경우가 적지 않다.
- 건물주의 대안은 운영이 불가능한 건물을 대출 기관에 넘기는 차압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NYT: Most Americans still have to commute every day. Here's how that experience has changed

미국 직장인들 출퇴근 환경이 바뀐다

- 미국인 평균 출퇴근 시간은 27분. 팬데믹 기간동안 재택 근무자가 많았지만 미국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때로는 1시간 이상 등 하루중 상당 시간을 출퇴근에 할애했다.
- 팬데믹 시대 출퇴근 방식은 재택 근무자와 사무실 출근자, 자가용 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의 여러가지 방식의 차이가 벌어졌다.
- 재택근무자 때문에 출퇴근이 줄면서 다른 사람들의 출퇴근 성격이 바뀌었는데 러시아워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기차 운행 횟수는 줄었다.
- 한편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의 주간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었다.
- 아래는 통근 방식의 변화를 알려주는 도표들

NYT 기사

Bloomberg: Rise in Infant Mortality Shows US Needs to Take Better Care of Moms

미국, 유아 사망률 20년 이래 첫 증가... 산모 건강관리 필요

- 연방질병관리센터(CDC)에서 공개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 미 유아 사망률이 3% 증가해 천 명당 5.6%를 기록했다. 이는 20년 이래로 수치가 처음 증가한 것이다.
- CDC는 이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지적했다. 알래스카 원주민과 아메리칸 인디언 여성, 백인 여성, 조산(임신 37주 미만) 및 조산(34주 미만)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사망률이 두드러진 것이다. 심지어 산모의 합병증과 세균성 패혈증 탓에 사망한 경우는 더 많았다.
-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이다.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작년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것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산모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자동차 파업]

CNN Business: The UAW is already looking ahead to its next auto strike

UAW, 이미 다음 자동차 파업을 계획한다

- UAW를 이끄는 노조 지도부가 이미 미국 내 노조가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다음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파업은 더 큰 규모로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 UAW의 책임자 Shawn Fain은 노조가 2028년 4월 30일을 최근의 잠정적 합의의 만료일로 정했다면서, 이는 UAW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들까지 연대해 파업을 고려한 것이라 말했다.
- 그러나, Rutgers 대학의 Todd Vachon교수는 전국 단위의 파업이나 다양한 업계의 연대적 파업은 유럽에선 흔한 일이지만, 미국에선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Fain의 말처럼 2028년의 파업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 부분적 이유로는,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된 반노동 태프트-하틀리 법(anti-labor Taft-Hartley Act)에 따라 미국의 노조가 파업을 벌일 수 있는 활동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CNN Business 기사

CNBC: GM is expected to invest \$13 billion in U.S. facilities under new UAW deal

GM, UAW와의 잠정 합의에 따라 130억 불 투자 계획

- GM이 2028년 4월까지 미국 내 생산시설에 대략 1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UAW가 최근의 GM과의 협상에서 끌어낸 잠정 합의 내용 중 일부이다.
- 잠정 합의의 상세 내용은 UAW의 지도부가 합의 내용을 승인하면서 지난 토요일에 공개되었지만, 아직 UAW에 소속된 노조원 4만 6천여명의 과반 수 비준을 받아야 합의가 완성된다.
- UAW가 스텔란티스와 포드와 맺었던 잠정 합의처럼, 이번 GM과의 합의 내용은 25%의 임금 인상, 보너스와 다른 향상된 혜택이 포함된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Is Globalization in Decline? A New Number Contradicts the Consensus

세계화가 쇠퇴하고 있는가?

- 지난 15년 동안 세계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이었지만, 조지타운 대학의 Sharat Ganapati와 오리건 대학의 Woan Foong Wong는 이전보다 교역이 활발하게 됐다고 말한다.
- 경제학자들은 무역 규모를 계산할 때 달러 가치를 사용하는 반면,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톤-킬로미터 즉, 화물의 총이동 거리에 총중량을 곱한 값을 선호한다.

- Ganapati와 Wong은 올여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수치를 이용해 글로벌 무역을 계산한 결과, 톤킬로미터 단위의 무역이 2008년 55조 달러에서 2019년 82조 달러로 49% 급증하여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 인플레이션 조정 GDP 성장률을 18% 앞질렀다는 것을 발견했다. 2008년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정점을 찍은 것과 대조된다.
- 톤수와 거리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달러 가치는 감소할 수 있을까? 이는 품목의 톤당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톤당 가격이 하락하거나 톤당 가격이 더 저렴한 상품으로 교역 품목이 바뀐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 이를 통해 Ganapati는 무역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세계가 여전히 글로벌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무역량이 증가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The holiday spending outlook is sluggish across thousands of retailers: CNBC Supply Chain Survey

연말 연휴 소비 전망이 좋지 않다

- CNBC Supply Chain 조사에 따르면, 물류 기업들이 연휴 쇼핑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 Robinson의 기업 관계자는 미국 경제가 소비자 지출의 변곡점에 다르고 있다면서, 수천개의 미국 소매업체들이 재고 결정에 신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형 유통업체 타겟은 지난주 CNBC와 인터뷰에서 쇼핑객들이 식료품 구매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화물 시장에서 트럭 운송 회사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 때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CNBC 기사

Bloomberg: Top-Ranked MBA Programs Struggle to Reverse Declining Applications

미 상위 비즈니스 스쿨들, 지원자 수 감소로 고군분투

- Bloomberg 가 상위권 비즈니스 스쿨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풀타임 MBA 프로그램 지원자가 최소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입학 담당관과 학교의 학장들은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기술 분야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 영향은 이번 가을 개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 일부 입학 담당관들은 또한, 온라인과 다른 새로운 MBA 과정이 전통적인 MBA에 대한 관심을 누그러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Labor Shortages, Remote Work Fuel Job Gains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인력 부족과 재택 근무로 장애인 근로자 증가

- 전체 인력중 장애인 인력 점유율은 올 여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팬데믹이 강타하기 직전부터 약 1백80만명의 장애인이 근로 인구에 합류했다. 이는 28% 증가한 수치인데 반면에 같은 기간 미 총 노동인구는 1% 증가했다.
- 재택 근무가 늘면서 대면 근무가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 문이 열리고 고용주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했기 때문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돈 가치, 美연준 결정 외에 투자·저축 등 수급요인으로 상승"

주택·주식 투자자 '고통'...예금·채권 보유자 수혜 가능성

최근 미국에서 달러화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데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투자·저축 등 현금에 대한 수급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지난 30여년간 떨어졌던 현금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물가를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투자(수요)·저축(공급)간 균형을 이루는 돈의 가격을 의미하는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을 근거로 이같이 평가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감안한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10년물 미 국채의 자연이자율은 1980년 5%대에서 지난 10년 사이 2% 미만으로 내려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